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25.(수)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최초로 중기부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3년 연속 선정

- 중소기업과 수도시설 보안 기술 공동개발 협력 사례 ‘윈윈 아너스’ 선정
- 물 인프라 실증 개방·공동 특허·조달 연계 등 현장 밀착형 상생 성과 인정
- AI 시대, 물 인프라 기반 신시장 창출…다양한 분야로 동반성장 과실 확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양승조)는 11월 24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수여식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선정 기록을 세웠다.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제도이다.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계기와 과정, 공동 성과를 종합 심사해 모범 사례를 발굴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상생의 영역을 넓혀가며 3년 연속 선정의 결실을 맺었다. 2024년 유망 물기업과 데이터 개방 플랫폼 ‘워터라운드’를 통한 디지털 물관리 솔루션 개발을 시작으로, 2025년 대청댐 지역 사회적협동조합과 친환경 소득 창출 및 탄소중립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프라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는 보안 기술 기업과 손잡고 신시장을 개척하며 상생의 외연을 확장했다.

이번 사례는 사용자 인증 보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센스톤과 함께 공사의 성과공유제를 통해 추진한 수도시설 보안 기술 공동 개발·실증 협력이다. 양측은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도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인증·접근 통제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검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제 수도시설 운영 현장을 실증 공간으로 개방하고 개발비와 실무 협업을 지원했으며, 양측은 공동 특허 출원도 추진 중이다. 이를 발판으로 협력기업은 투자 유치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창업-기술개발-실증-판로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댐·정수장 등 보유 시설을 중소기업의 실증 현장으로 개방하고,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통해 총 149건의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중소기업과 나눴다. 아울러 기술마켓·혁신제품 연계 공공 조달, 벤처펀드, 해외시장개척단 등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 인프라 보안 같은 기술이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현장에서 공사의 물 인프라가 중소기업의 혁신 무대가 되도록 지원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1매(별첨). 끝.

담당 부서	기후테크혁신처 기술협력부	책임자	부 장	김진권 (042-629-2521)
		담당자	차 장	이용준 (042-629-252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사진 오른쪽,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 부문장)가 11월 24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 수여식에서 기념패를 받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공사가 성과공유제를 통해 추진한 수도시설 보안 기술 공동 개발·실증 협력 사례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됐다.